

Abstract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내용

2. 텍스트와 형상의 상호매체성-알레고리

- 2-1. 알레고리의 개념
- 2-2. 현대의 알레고리

3. 해체주의

- 3-1.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 3-2. 이미지와 텍스트-상호텍스트성
- 3-2.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해체주의 특성

4.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알레고리의 역할과 기능

- 4-1. 커뮤니케이션 기능
- 4-2. 조형적 기능

5.

참고문헌

현대의 정보전달 방식이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이동해가고 있는 오늘날 조형예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에 띄는 새로운 경향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이미지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 반면 텍스트는 점점 감소하거나 해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문자의 혼합과 해체,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 그리드의 파괴, 불협화음과 부조화,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병렬배치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로 유도된다.

알레고리의 목적은 표현이 지시하는 의미의 '애매성'을 통하여 '다의미(Polysemien)'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알레고리에서의 의미지시 방식이 표현의 직접성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를 이루며, 양자의 결합은 단지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적 예술의 핵심을 이루는 '상징'과 '미'를 거부하는 현대의 (해체주의적) 예술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법에 대한 요구와 함께 알레고리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부정성(비규정성)과 애매성의 특성이 보다 침체화되어 재활성화 된다.

문자와 형상이미지, 문자와 사물간의 병존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번역의 가능성은 예술 내적인 상황으로서 시각언어를 해체하고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 외적인 모든 상황으로도 확대된다. 즉 현대에 있어서 시각미술은 소통을 지향하기보다는 조형성의 극대화를 통한 해석의 다양성을 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경향과 설득적 수사어법의 하나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알레고리의 관계 규명 및 알레고리적인 표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및 조형적 기능이 어떻게 부각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Abstract

Today, Modern method is moving that see in that read in new inclination which is seen in eye that is occurring in visual art while role of image enlarges to pass meaning, text decreases gradually or is that

section. This tendency appeared by aspect of literal dithering and deactivation, overlap of image and deactivation, destruction of grid, discord and unbalance, distortion of form and short piece, juxtaposition etc.. . These characteristics are derived as how see what? Purpose of allegory at the same time, appeared 'Polysemien' through the opacity of meaning that expression indicates, that is observed here meaning direction method in allegory accomplish in directness of expression contents and form 'inconsistency', and combination of both just can be made ideally. That makes of traditional art that 'symbol' and 'beauty' refuse indefiniteness(non-regulation) and special quality of opacity are become acute and revitalize more that is contained essentially in allegory with request about investigation art that is new in modern (Deconstructionism) art circumstance. It is text and image, possibility of translation that can happen between coexistence and he between text and things are expanded by art all external circumstances as well as is deconstructed visual language as art inner circumstance and branches.

That is, visual art is circumstance that is seeking variety of analysis through maximization of plastic more rather than intend traffic in today.

I wish to examine closely communication function of expression and the deconstructual tendency and relation searching examination of allegory that is appearing newly by one of investigation the pursual and allegorical expression that appear in modern typography how function is embossed.

(keyword)

Deconstructionism, Allegory, Text, Image

1.

1-1.

디자인은 시각적 소통(visual communication)행위이다. 이는 시각 언어 즉, 시각에 호소하여 의미를 소통시키는 언어를 통해 표현, 전달된다. 그래픽 디자인은 비언어적 시각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시각 기호는 언어 메시지에 비해 의미의 함축이 보다 심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래픽 디자인은 비언어적 시각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또한 정보제공(informing)과 동시에 설득하기(persuading)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각언어가 갖는 의미의 함축성은 수용자를 메시지 해석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수사학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오류 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설득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학문영역이다.

과거의 문자는 글자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가 가지는 시각적 효과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의식적으로 디자인했었던 것이다.¹⁾ 특히 아르누보 양식에 있어서 도상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각적 특징을 보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세밀하게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지와 언어는 서로 보완하거나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하면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와 언어는 서로 보완하거나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언어와 이미지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혼합과 해체,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 그리드의 파괴, 불협화음과 부조화,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병렬배치 등의 양상으로 메시지의 모호성으로 기존의 의미들이 흐려지게 되었다. 또한 해석의 다양성을 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다양한 열린 해석을 요구한다. 이는 오늘날 시각미술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의 그것과 대조되는 차이라고 할 수

1) 히로시, 강현주, 최선녀 옮김, 20세기의 디자인, 조형교육, 1997, p.45.

있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레고리적 수사법의 활용은 기능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시각미술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표현방법인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경향과 설득적 수사어법의 하나인 알레고리의 역할과 상응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1-2 및 내용

본 논문은 먼저 알레고리의 개념의 변화를 통해 정보화 다변화되는 21c에서의 새로운 알레고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대에서의 알레고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데리다의 글쓰기 개념(차연, 여백, 흔적, 산중)을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표현의 분석틀로 설정하여 분석, 이를 현대적 알레고리와 연관지어 커뮤니케이션측면과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형상의 상호매체성 - '알레고리'

2.1 '알레고리'의 정의

알레고리는 “상이하게 말함(versililoquium)” 혹은 “다르게 말함(alieniloquium)”을 뜻하는 “allos”와 ‘alorenein’의 합성어인 알레고리의 어원에서 알레고리의 의미를 추출하여, 첫째 ‘말이 뜻하는 것과 같지 않거나’, 둘째 ‘말이 뜻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레고리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알레고리의 목적은 표현이 지시하는 의미의 ‘애매성’을 통하여 ‘다의미(Polysemien)’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알레고리에 들어 있는 다의미는 ‘이중적 의미로서, 일차적 의미인 표면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인 숨은 의미로 구성’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알레고리에서의 의미 지시 방식이 표현의 직접성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를 이루며, 양자의 결합은 단지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중세까지의 초기 알레고리는 교훈적 혹은 성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서구 사회의 역사관 혹은 종교관을 우화적으로 풀어내는 수사적 장치로 사용되었다. 즉, 본래 내용 전달 즉, 의미전달의 기능이 강한 표현방식으로 중세시대까지는 의미전달에 보다 더 그

기능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중세 미술에서 시각화를 통한 알레고리가 있었으나, 그것은 조형적이거나 미적인 하위에서의 알레고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의미 전달을 위한 도상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존의 문학과 미술의 알레고리에 있어서 강조된 것은 의미 전달의 차원, 즉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렇듯 중세시대에는 기존의 텍스트 혹은 글에 내재되어 있던 교화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감각적인 조형적 요소를 살림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근대적 개념의 알레고리론을 수립한 ‘벤야민(Benjamin)’은 알레고리를 상징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상징은 유기적 총체성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연계된 것인 반면, 알레고리는 파편화된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합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알레고리가 병치를 기초로 한 환유라면 상징은 대체를 기본으로 하는 은유의 구조를 지녔다고 설명한다. 이는 알레고리의 사회적 기능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감소된 반면 조형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알레고리의 개념은 ‘벤야민(Benjamin)’에 의해 정착되었다. 그는 “알레고리는 그 의미와 분명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호로서 미술에서는 기호와 의미가 뒤섞여 흘러가는 미적 가상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모든 사물, 모든 관계는 자의적인 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러한 자의성 때문에 알레고리는 다의적이다.²⁾ 이는 곧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의 다양성과 의미의 다의성으로 직결된다.

2.2 현대에서의 알레고리

현대에 있어서 알레고리에 대한 논의는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적 기호관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접촉 가능 혹은 수신자 기능에 강조점을 둔다. 즉 메시지보다 메시지의 전달 상황을 강조하는 기능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의 알레고리는 구조주의와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이후로 새롭게 부각

2) ,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알레고리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25.

되는 해석 행위의 중요성 그리고 독자의 개입과 그 해석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갈래로 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지평인 셈이다. 이는 수용자가 속한 문화나 취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3.

3-1.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1960년대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³⁾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된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고, 나아가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 전반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는 어떤 기호가 갖는 의미를 해체, 분석하고, 이 해체된 것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체’는 표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되지 못한 것들을 그 주변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까지 파헤쳐 유도해 내어 재조사하는 과정이다.

데리다의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은 의미와 기호의 불확실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인 구조일 뿐으로 기존의 구조나 기호라는 개념이 의미의 중심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데리다는 우리가 현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존의 자취이자 하나의 환상이고 흔적이며 대체물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데리다의 해체전략은 전통이나 말 중심주의 밖에서의 파괴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해 놓은 것을 그 근본부터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 시대를 대변해 주는 새로운 사조로 데리다는 이를 통하여 이성, 질서, 총체성 등의 회복을 신뢰하는 세계관을 해체하고 비(非)이성, 무질서, 파편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데리다의 텍스트에 대한 담론은 다음과 같다. 어떤 텍스트가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부분과 실제로 텍스트를 통해서 혹은 글쓰기의 작용에 의거해서 실천된 부분과 실제로 텍스트를 통해서 혹은 글쓰기의 작용에 의거해서 실천된 부분 사이의 불일치, 긴장, 모순의 관계를 추적하고 들추어냄으로써 작가가 스스로가 단일하고 매끈한 의미의 표면이라고 믿는 텍스트를 균열시키고 파

3) , 해체론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p.161~167.

편화시키며 그 텍스트 속에 다양한 의미들을 ‘흩뿌린다’. 이러한 그의 담론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타이포그래피는 그 표현에 있어서 활자의 형태, 간격, 여백, 이미지 등의 타이포그래피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파괴, 분해, 중첩, 삭제 등의 전통적 규범에서 이탈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데리다의 해체전략은 전통이나 말 중심주의 밖에서의 파괴(destruct)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그 근본부터 해체(deconstruct)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체주의는 불확실성을 대변해 주는 새로운 사조로 데리다는 이를 통하여 이성, 질서, 총체성 등의 회복을 신뢰하는 세계관을 해체하고 비(非)이성, 무질서, 파편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⁴⁾

3-2. 이미지와 텍스트 - 상호텍스트성

‘읽을 수 있음(문자로 된 읽는 언어)’이란 문자로 된 언어를 말하고, ‘볼 수 있음(시각적으로 보는 초언어)’이란 이미지나 형상언어와 같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문학에서는 문자언어를, 예술에서는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져 왔다. 그러나 쓰여 지는 언어도 일종의 그려지는 과정을 거친 것이며, 그려지는 이미지도 일종의 그려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와 이미지는 두 영역이 공통분모를 가진다는 것이며, 그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텐베르크 이후 서구 문화를 지배해 온 문자 중심의 사고는 언어적 사유만을 지적 능력의 표상으로 여기며 언어 중심의 교육체제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는 철저히 구분되어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미지 읽기’, ‘이미지로 사유하기’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조형예술의 일부분으로서 한정된 영역의 사람들만이 전유하는 특수한 영역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 시기의 시각 디자인 작업들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철저히 구분하여 이미지는 단지 보여 지는 것이고 텍스트는 읽혀지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⁵⁾

4) 이윤경, 유희자극을 주는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7.

5) 강현주, 영상 이미지 교환으로서의 디자인 수사학, 조형포럼

오늘날 시각예술에서는 예술에서의 형상성 혹은 시각성과 언어의 지시성이 상호텍스트 된다. 나아가 언어와 비언어, 더 크게는 언어와 초언어적인 모든 물(사물)의 세계가 상호간의 번역으로 병행되어 상호텍스트 된다. 시각언어는 문자언어를 포용하고, 그 의미와 형상 모두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더 이상 하나를 다른 하나에 부속시키는 종속관계도 아니고, 우위에 두는 지배관계도 아닌, 상호텍스트의 맥락에 둔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각언어와 예술언어, 그리고 문자언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자와 형상이미지, 문자와 사물간의 병존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번역의 가능성은 예술 내적인 상황으로서 시각언어를 해체하고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 외적인 모든 상황으로도 확대된다.

최초의 글쓰기는 ‘그려진 이미지’이고, 이것은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순수한 반영’으로서 ‘아직 다른 모든 상징적 의미들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 그리기라는 기술을 언어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그리기는 바로 데리다의 언어철학 가운데 요체가 되는 요소이다. 오늘날 시각예술에서는 예술에서의 형상성 혹은 시각성과 언어의 지시성이 상호텍스트 된다. 나아가 언어와 비언어, 더 크게는 언어와 초언어적인 모든 물(사물)의 세계가 상호간의 번역으로 병행되어 상호텍스트 된다.

시각언어는 문자언어를 포용하고, 그 의미와 형상 모두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더 이상 하나를 다른 하나에 부속시키는 종속관계도 아니고, 우위에 두는 지배관계도 아닌, 상호텍스트의 맥락에 둔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각언어와 예술언어 그리고 문자언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자와 형상이미지, 문자와 사물간의 병존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번역의 가능성은 예술 내적인 상황으로서 시각언어를 해체하고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 외적인 모든 상황으로도 확대된다.

3-2.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특성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표현은 질서와 명료성을

중시하는 국제 타이포그래피 양식에 반기를 든 볼프강 바인가르트, 허버트 스펜서, 에이프릴 그레이먼 등에 의해 표현되기 시작되었다. 바인가르트는 전통적인 구성원리를 거부하면서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지닌 유희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였다⁶⁾. 해체주의적 타이포그래피는 그 표현에 있어서 활자의 형태, 간격, 여백, 이미지 등의 타이포그래피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파괴, 분해, 중첩, 삭제 등의 전통적 규범에서 이탈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현대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있어서 해체주의적인 경향은 데리다의 텍스트에 대한 담론과 연관된다. 따라서 데리다의 글쓰기 개념을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표현의 분석 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차연(difference)

차연이란 시간화 되면서 생기는 지연과 공간화에 따른 차이를 뜻한다.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표현에서 차연의 의미는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 의미론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이한 체계를 임의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환기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필자는 몽타주기법과 관련지어 해석하고자 한다.

텍스트에서는 서로 다른 이미지들과 재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몽타주나 표의문자(表意文字)의 구성과도 같다. 가령 물(水)에 눈(目)을 더하면 눈물(泪)을 나타내듯이 문을 나타내는 ‘門’에 귀를 나타내는 ‘耳’를 합치면 ‘聞’이 된다. 즉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⁷⁾

이러한 몽타주의 구조는 개방적 구조이며, 작가의 계산된 의도적 구조이기도 하다. 작가는 하나의 단일한 장면으로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미지를 몽타주 하면서 중층구조화 하여 복수적 의미를 생산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의 표현인 것이다.

몽타주 기법과 발터 벤야민(Benjamin)이 말하는 알레고리 기법은 상통하는데 이는 파편화 된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합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예술원리로서의 몽타주 이론이란 ‘특정한 미학적 효과를 위해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극적 요소

6) B. 맥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디자인하우스, p.276.

7)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이정하 편역, 몽타주 이론, 변증법적 영화예술론, 예건사, 1990, p.116.

등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몽타주 이론이 좁게는 영화의 기법에만 국한될지라도, 넓은 의미로 볼 때, '특정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예술적 요소들을 배열,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텍스트의 표현과 나열 방법에 있어 더 많은 유연적인 것들과 겹치고 결과적으로 글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어 폭 넓게 해석되어 지도록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이는 수용자가 속한 문화나 취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2) 여백(margin)

데리다는 여백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가득 찬 여백으로서 '적극적 여백'과 비어있는 여백으로서 '소극적 여백'으로 구별한다. 적극적 여백은 눈, 백조, 처녀성, 백지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소극적 여백은 사이, 빈틈, 간격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용성'과 연관된다. 그러나 적극적 여백이나 소극적 여백 둘 다 완결된 고정적 의미나 고유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생산'의 이중성을 띤 공간으로 보았다.⁹⁾

이상과 같은 여백에 대한 논의를 보면 여백은 막연하게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조형성을 지닌 생략된 공간이며, 주변과 관계하여 내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으로써 시각적인 연상효과를 준다. 그러므로 감상자 스스로의 상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수용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또한 여백의 공간이란 흰색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색채가 있는 경우라도 사물의 표현이 없는 비어있고 생략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여백의 공간 영역으로 다룰 수 있다. 독자는 텍스트에 표현된 대상층의 미결정적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나간다. 이러한 독자들의 행위를 통하여 독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구체화'란 문학 텍스트 구조에 들어있는 '빈틈'이나 '미정성'을 의미로 채우는 것이다. 여기서 미적체험은 독자가 텍스트 속에 들어 있는 낯선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미정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미정성'이 담겨진 형식을 '빈자리'라고

한다. 빈자리에 의해 야기된 미정성은 그것이 독자의 경험에 의한 상상만큼 채워지는 것이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자가 사라진 후 텍스트에는 '언어'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텍스트를 어떠한 권위적 통제나 해석적 경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자를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여기서 언어는 어떠한 규범이나 구조에 의하여 체계화되거나 통일화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다의적 의미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죽음'은 새로운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를 죽인 바르트의 해석 방법은 이전과 같은 저자의 의도와 작품의 형식적 구조를 거부하고, 텍스트를 열어놓음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의한 즐거움과 자유로운 유희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 또는 언어의 형식구조에 의하여 단 하나만의 의미만을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다의적이고 무한한 의미가 뒤섞여지고 맞부딪치는 다층적 의미의 공간이 된다.¹⁰⁾ 그리고 텍스트의 객관적인 의미의 근거가 되어 온 저자가 죽음으로써 이제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들을 읽어내는 '독자'가 탄생한다. 텍스트는 단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적 의미들의 장이다. 이에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에 하나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의성으로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 되었다.

3) 흔적(trace)

흔적(痕迹)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순수작용으로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흔적은 차연의 개념에 속한다. 해체철학에서는 흔적에 의해서 무의식의 텍스트 자체가 이미 조직되어 있고, 의미와 힘이 일체화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흔적의 표현은 뚜렷하지 않은 활자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개념요소를 가시적인 시각요소로 실체화한다.

4) 산중(dissemination)

먼저 데리다의 텍스트에 대한 답론은 어떤 텍스트가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부분과 실제로 텍스트를 통해서

8) , 이미지와 텍스트의 대위법적 어울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p.29.

9) 김영호,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9, p.155-158.

10) 오세권, 텍스트 해석을 통한 후기모더니즘 미술의 비평적 접근,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p.70-72.

혹은 글쓰기의 작용에 의거해서 실친된 부분 사이의 불일치, 긴장, 모순의 관계를 추적하고 들추어냄으로써 작가 스스로가 단일하고 매끈한 의미의 표면이라고 믿는 텍스트를 균열시키고 파편화시키며 그 텍스트 속에 다양한 의미들을 ‘흩뿌린다’. 이는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동일한 문장과 단어의 반복을 화면 여러 곳에 뿌려지는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단어나 문장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의미 외에 새롭게 파생되는 시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알레고리

4-1. 11)적 측면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넘쳐나는 정보량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다. 그 중에서 오늘날의 정보 전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주로 시각과 청각이다. 이로 인해 청각과 시각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한 전달은 일단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어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게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의도된 공유 형태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특히 대두되고 있다.¹¹⁾

커뮤니케이션은 상징 symbol을 통하여 의미 meaning을 전달 transmission하는 현상, 즉 정보 information 전달의 현상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¹²⁾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필연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자와 의사를 전달받는 수용자가 존재하게 된다. 아울

11) 정의를 1.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 또는 행동 등을 변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2.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언어나 그림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라는 기호적 자극을 3. 특정의 매체를 통해 4. 특정 대상의 수용자들에게 전달 5. 그 수용자들로부터 의도했던 반응을 유발하는 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

,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대출판부, 1989, p.13-14.

12) 나가오 마코토 외, 멀티미디어 정보학의 기초, 한국학술정보, 2000, p.25.

13) 유평근,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p.159.

러 의사소통의 매개물로서 기호가 존재하게 된다.

타이포그래피는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 중에서도 언어를 중심에 둔 시각예술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형성된다. 타이포그래피는 청각적인 음성언어와 시각적인 문자언어, 눈에 보이는 기표와 보이지 않는 기의, 언어가 갖는 정보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 문자의 차원과 구문의 차원, 글자나 활자를 다루는 방법론과 그 결과물로서의 물질적 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이루며 작용하는 시각-언어 기호작용이다. 즉 타이포그래피는 청각적인 동시에 시각적이고, 텍스트인 동시에 이미지이며, 기호로 이루어진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기호가 되는 상징적 기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언어, 철학적인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언어가 의사표현을 위한 매체로써 많은 연구와 그에 따른 문학이나 언어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이미지는 과연 그것이 의미 전달에 소용되는 ‘언어체’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하면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와 언어는 서로 보완하거나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 미술은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이 말하듯이, 수용자의 해석과 이해가 예전과 달라졌고 생산자 입장의 작가들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다양한 열린 해석을 요구한다. 이는 오늘날 시각미술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의 그것과 대조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레고리적 수사법의 활용은 기능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표현방법이다.

4-2. 조형적 측면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각색되고 차용된 것으로 원래 의미에 다른 의미를 첨가하여 결국에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주얼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나고 독특한 표현

14) 송숙영, 이미지-텍스트 관계에서 본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의 기호적 성격,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 p.9.

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는 특히 과장, 불가사의한 표현, 비주얼 스캔들, 몽타주와 콜라주¹⁵⁾기법,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레이아웃 등 독특한 테크닉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드러냄으로써 차별화를 유도한다. 또한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를 통해 여러 시각요소들이 자유 분방하게만 떠돌아다니는 듯하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 공간적 깊이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문자의 앞뒤가 바뀌고, 해체되고, 다른 의미로 분석되어 표현된다. 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고정적인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한번 단어 안의 낱글자들이 분할될 때마다 다른 결합을 예고하며, 분할과 결합이 반복될 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생겨나고, 의미 또한 달라진다.

5.

‘알레고리’는 고전적 예술의 핵심을 이루는 ‘상징’과 ‘미’를 거부하는 현대의 예술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법에 대한 요구와 함께 알레고리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부정성(비규정성)과 애매성의 특성이 보다 첨예화되어 재활성화 된다. 이러한 알레고리의 목적은 표현이 지시하는 의미의 ‘애매성’을 통하여 ‘다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부조리한 사회와 사상을 비판하는 현대문학들에서의 수사법은 물론이며, 현대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영화의 고유한 제작방식인 몽타주(조합)도 알레고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고의 논점과 연관지어 고찰될 수 있는 현대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알레고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하나의 “충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나는 경향은 이미지의

15) 의미로 여러 층이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회화적으로는 콜라주(collage)를 의미한다. 또한 조형의 기초 요소인 선과 면, 면과 면이 서로 겹쳐지면서 생기는 상호 침투효과로 동시성, 침투성, 투명성, 중첩과 같은 공간 의미를 추구하는 표현방법으로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형태의 창작요소로서 중첩이라 한다. 이러한 중첩의 과정은 원형과 다른 형태의 의미로 창출되거나 혼합, 재구성되어 시각적으로 여백에 새로운 조형감을 부여하게 된다. 이윤경, 유희자극을 주는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p.17-18.

역할은 점점 커지는 반면, 텍스트는 점점 감소되거나 해체되어 나타난다. 이는 문자의 혼합과 해체,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 그리드의 파괴, 불협화음과 부조화,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병렬배치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본문에서 살펴 본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글쓰기 개념(차연, 흔적, 여백, 산중)을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표현의 분석 틀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 알레고리와 연관지어 커뮤니케이션 측면과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알레고리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조형성의 극대화를 통한 해석의 다양성을 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메시지의 모호성으로 인한 기존의 의미들 또한 모호하게 되었다. 또한 해석의 다양성을 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수용자의 다양한 열린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수용자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조형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독특한 표현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한다.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각색되고 차용된 것으로 원래 의미에 다른 의미를 첨가하여 결국에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는 특히 과장, 불가사의한 표현, 비주얼 스캔들, 몽타주와 콜라주 기법,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레이아웃 등 독특한 테크닉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드러냄으로써 차별화를 유도한다. 또한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를 통해 여러 시각요소들이 자유 분방하게만 떠돌아다니는 듯하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 공간적 깊이감을 느끼게 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리듬감을 주어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시각적 유희로 작품에 적극 참여케 한다.

결론적으로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다양한 열린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 시각미술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의 그것과 대조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레고리적 수사법의 활용은 기능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표현방법이다. 따라서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주의적 경향과 설득적 수사어법의 하나인 알레고리는 커뮤니케이션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이 상충하다고 볼 수 있다.

단행본

- 1)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 2) 김영호,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9
- 3) 나가오 마코토 외, 멀티미디어 정보학의 기초, 한국 학술정보, 2000
- 4)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이정하 편역, 몽타주 이론, 변증법적 영화예술론, 예건사, 1990
- 5) 유평근,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
- 6) 차배근,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대출판부, 1989
- 7) 카시와기 히로시, 강현주, 최선녀 옮김, 20세기의 디자인, 조형교육, 1997
- 8) 필립 B. 맥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디자인하우스
- 8) David S. Kaufer, Brian S Butler ,Rhetoric and the Arts of Design, LEA, 1996

논문

- 1) 강현주, 영상 이미지 교환으로서의 디자인 수사학, 조형포럼no.22, 1999
- 2) 권정임, F.W.J. 셸링의 예술규정에 관한 비교예술론적 고찰 : 텍스트와 형상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 연구 No.18, 2003
- 3) 김지현, 의미의 타이포그래픽 전환,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 4) 문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알레고리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5) 송숙영, 이미지-텍스트 관계에서 본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의 기호적 성격,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
- 7) 오세권, 텍스트 해석을 통한 후기모더니즘 미술의 비평적 접근,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 8) , 유희자극을 주는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9) 이재영, 이미지와 텍스트의 대위법적 어울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 10) 최태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있어서 상징과 알레고리,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제45권), 1997